

# History Taking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놓으신 성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과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게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숨겨진 성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와 환자의 첫 만남은 History Taking, '문진'이라는 절차로 시작된다. 둘 다 처음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 이제부터 서로 알아가야 한다. 처음에는 서로 알고 싶은 내용이 사뭇 다르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추구하는 목표가 같아진다. '치유와 회복'

치유와 회복으로 가기 위해 거치는 첫 번째 중요한 과정이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문진이다. 말 그대로 질문하고 진찰하는 것이다. 환자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듣지 못하면 의사는 환자를 알 수 없다. 올바른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환자의 답을 들으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 전문가적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체계적으로 들어야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는 임상과 관련된 강의의 시작으로 '진단학'을 가르치며, 진단학 교과서의 첫 페이지를 열면 가장 먼저 소개되는 내용이 History Taking이다.

이러한 문진에는 보통 8~10개 정도의 구성요소가 있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그중 필요한 것들만을 환자상태에 맞게 자질로 질문하게 되는 날이 오지만, 그전까지는 체계적인 질문의 훈련을 위해서 그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분석하여 질문하는 연습을 해야 하며, 질문이 겨냥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머리 속에 질문의 최종 목표에 관한 확실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

첫 번째로 묻는 것은 환자의 전반적인 프로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질문은 '환자의 이름'이다. 의사에겐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때론 영종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동명인이나 비슷한 이름이 많은 경우 환자대기실에서 호명했을 때, 비슷한 다른 환자가 진료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해속"씨와 "해속"씨는 다르지 않은가. 이름 확인의 중요성은 최근 들어 환자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주목 받고 있다. 중요한 약물의 경우 투약의 오류를 막기 위해 반드시 투약 전 환자 이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 의사에겐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보다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

이름 외에 나이, 결혼 여부, 교육정도, 직업, 살고 있는 환경 등을 질문한다. 이런 질문들은 극히 개인적인 정보들이지만 질병과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진료 현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묻게 되는 질문은 환자에겐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그것은 'Chief Complaints'라고 하는 '환자의 주요 호소증상'을 말한다. '어지러워요', '배가 아파요', '속이 쓰려요', '뭔가 만져져요', '불안해요', '항상 피곤해요'.....

의사는 환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주 증상을 들으면서 진단명이 떠오를 수도 있고, 오리무중에 빠질 수도 있다. 좀 더 증거를 모아야 한다. 환자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 보아야 한다. 보통 이러한 주 증상을 크게 나누면 통증과 관련된 증상과 그렇지 않은 증상으로 나눌 수 있다.




**최현일** 신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료대학 교수와 호신의료재단 생명성병원을 역임하고 현재 호신의료재단 생명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원장을 지냈다.

보다 더 많은 판단의 근거를 모으기 위해 조금 더 환자의 주 증상을 해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필요로 한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의과대학에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논리의 전개가 아닌 그저 그의 이름만이 허무하게 쓰인다. 님은 아닌 의과대학생들의 전유물과도 같은 'mnemonic(단어나 문장의 첫 글자 등을 따서 말을 만들어 기억을 돕는 연상법)'을 위해서 소크라테스의 이름을 불러보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특히 통증과 관련된 증상의 특징을 알기 위해 사용된다.

어떤 환자가 두통, 복통, 허리통증, 생리통 등 통증을 주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의사들은 소크라테스를 사용하여 통증의 성질을 규명하는 첫 번째 노력을 한다. 즉, SOCRATES에서 S는 Site(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는 어디인가?), O는 Onset(통증이 갑자기 혹은 점진적으로 느껴졌는가?, 처음엔 무시할 정도였으나 점점 더 심해졌는가?), C는 Character(지속적인 통증인가?,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통증 인가?), 그리고 R은 Radiation(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리는 것처럼 통증이 다른 곳에 영향을 주는가?), A는 Alleviating factors(어떤 경우에 통증이 완화되는가?), T는 Timing(언제부터 통증의 증상이 느껴졌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는가?), E는 Exacerbating factors(어떤 경우에 통증이 악화되는가?) 마지막으로 S는 Severity(통증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가? 수면에 영향을 주는가?)이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현재에도 의사들을 도와주고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부터는 환자가 이야기한 주 증상을 중심으로 연관된 다른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제 그저 진단절차의 빙산의 일각만을 보았을 뿐이다. 앞으로도 환자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한다. 최종 진단의 의사결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History Taking에는 환자의 현재 증상도 면밀히 들어야 하지만 환자의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 여정이 또한 중요하다. 'Past History'라고 하는 과거병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 차례이다. 이전에 치료받고 있는 다른 질병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 약이 있는지, 특별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지, 수술한 적이 있는지, 임신과 출산력은 어땠는지, 수혈한 적이 있는지 등...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그리고 Family history, Social history 등을 넘어 Review of System(계통문진)이라는 단계까지 가야 겨우 1단계를 마치게 된다. 참 어려워 보인다.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이 쉽지 않다. 정말 수많은 History가 있다.

사람이 태어 시절, 기능을 하는 오감 중 첫번째 감각이 듣는 것이고, 실을 마감할 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감각이 듣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첫 만남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잘 들어야 좋은 진단이 나올 수 있다. 잘 들어야 좋은 치료가 가능하다. 듣기 위해 진료실로 향한다. 새로운 환자가 들어온다. 또 다시 첫 만남이다. History Again. 



## 기독교세계관을 만나다

26살. 진료를 찾아 방황하다가 뒤늦게 기독교교육 학과로 편입하여 수강신청을 앞두고 있었다. 우습지만 나는 그때 '기독교세계관'이라는 과목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과목소개에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는 문구가 있었다. 특별히 '관점', '세계관', '세상'이라는 단어가 흥미로워 보였다. 그래서 클릭. 그렇게 기독교세계관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첫 수업부터 문화적 충격이 있었다. '보로로를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평가?' 지난 학기에 우수한 성적을 받은 예세이 주제였다. 아직 기독교세계관이라는 단어도 어색했던 시기였는데, 보로로를 뭐 어떻게 한다고?! 유아 프로그램인 '보로로'까지 기독교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다. 그렇다면 '포르노'도 기독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 포(뽀)로노와 발음이 비슷한 보로로 때문에 이런 장난스런 생각이 스쳐갔다. 그런데 그 불운한(?) 생각이 머리를 쳤다. '아니, 보로로나 포르노나 똑같은 영상매체고, 시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집중력을 갖게 만드는 것도 비슷하고 심지어 중독성까지 같잖아! 그렇다면 조금 위험한 발상이지만 포르노도 기독교세계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시작된 호기심은 좀처럼 머릿에서 떠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수업 내내 이 생각뿐이었다. 교수님이 수업



**김영구** 아세이연합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영어과정(MGS)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목회학석사 과정을 받고 있다. 현재 CTC(크리스천빙킹센터, 대표 유경성)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중이며 신문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종교투부 이들과 줄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별히 크리스천 성교육을 연구하며 대한학교와 교회 수련회에서 특강으로 성기고 있다.